

1. 사라/유니아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수요일 오전 9시

2. 남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수요일 저녁 7시

3. 교회 청소 및 화단 정리(잡초 제거) 7/26(주) 오후 2시

4. 주일현장예배 재개 8/2(주)

주일현장예배가 8월2일부터 재개됩니다. 주일현장예배 참석 시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순장님들을 통해 문자/카카오톡으로 전달 될 것 입니다.

**\* 8/2일부터 온라인 예배는 영상녹화예배가 아닌 실시간예배로 변경 됩니다.**

- (1) 주일현장예배 사전등록
- (2) 개인보호 장비 착용 (마스크, 장갑)
- (3) 발열 검사
- (4) 헌금은 본당 입구에 준비된 헌금함 사용
- (5) 손 소독
- (6) 본당 좌석 사회적 거리 유지 (예배 중 마스크 항시 착용)
- (7) 예배 후 지정된 출구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퇴실

<b>7/20 (월)</b>	신명기 12:8-14	이 사 야 18-23
<b>7/21 (화)</b>	신명기 12:15-19	이 사 야 24-27
<b>7/22 (수)</b>	신명기 12:20-28	이 사 야 28-30
<b>7/23 (목)</b>	신명기 12:29-31	이 사 야 31-35
<b>7/24 (금)</b>	신명기 12:32-13:5	이 사 야 36-39
<b>7/25 (토)</b>	신명기 13:6-11	이 사 야 40-42
<b>7/26 (주)</b>	주일설교본문	이 사 야 43-44

예배인도 및 말씀선포: 김영목 목사

주일 영상예배: 오전 11시

예배의 부름	요한복음 4장 24절	사회자
예배기원	“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”	다함께
사죄은총		다함께
감사찬송	25장	다함께
교 독 문	27번 (시편 121편)	다함께
사도신경		다함께
광 고		사회자
성경말씀	마가복음 6장 30~44절	다함께
말씀강해	“오병이어의 기적”	김영목 목사
송영찬송	415장	다함께
축도		김영목 목사

<오병이어의 기적>

마가복음 6장 30~44절

◆ 서론. 어느 이민 가족 이야기

◆ 본론. 오병이어 이야기 속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

1. 시험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심

- 1)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아셨으나,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자들에게 맡기심
- 2) 머리로만 해결하려는 제자들  
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보여주신 예수님

2.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심

- 1) “이것 밖에 없다” vs “그것이면 충분하다”
- 2)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.
- 3)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강제로 요구하지 않는다.  
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다리신다.
- 4) 뒤로 물러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려라.

3. 작은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심

- 1)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예수님
- 2)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.
- 3) 예수님의 감사가,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를 낳았다.

◆ 결론.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

< 반드시 찾아온다 >

미국의 한 자동차 판매원은 자신의 고객에게 1년에 12번씩 안부 편지를 보냈습니다. 그가 여느 때와 같이 사무실에서 고객들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본 동료는 물었습니다. “차를 한 번 산 사람은 최소 10년은 탈 텐데...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? 나라면 그 시간에 새로운 고객을 찾겠네.” 편지를 쓰던 판매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“놀이동산에서 재밌는 놀이기구는 다시 한 번 타듯이 나에게 차를 구입해 만족한 고객은 언제든 다시 나를 찾아준다네. 나를 한 번 찾은 고객이 다음 번에도 반드시 나를 찾게 만드는 것이 나의 영업비결이네.” 조지 라드라는 이름의 이 판매원은 훗날 12년 연속 자동차 판매왕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세일즈맨의 전설이 되었습니다. 한 번 찾아온 사람을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은 끝없는 배려와 노력입니다.

오늘 전한 한 장의 주보, 한 구절의 말씀이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낼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.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,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아도 복음 전파의 중대한 사명은 주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. 나의 초청으로, 다른 교인의 초청으로 교회를 찾은 성도들이 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노력을 아끼워하지 마십시오.